

與, 원구성·3차 추경 '속도전'

원내대책회의... 일하는 국회 추진단 구성·국회 개혁안 마련 계획 법사위 자구심사권 폐지 등 법안 처리 속도 높이기 제도 개선 다짐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시한 내 21대 원구성을 마치고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추경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미래통합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구성하고 종합적인 국회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도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개원 준비에 바로 돌입해야 한다. 이번 만큼은 원구성 법정시한을 지켜야 한다. 20대 국회가 원 구성에 14일을 소요해서 역대 최단 기록을 세웠지만 법정시한을 지키지는 못했다"면서 "21대 국회는 20대 국회보다 시간을 더 단축하고 반드시 법정 시한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3차 추경도 21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를 신속하게 열어 민생을 챙기는데 공백이 없어야 한다. 미래통합당과 오직 국민을 위해 원 구성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또 간절하게 협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속도를 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운영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20대 국회가 들었던 '이게 국회냐'는 질타를 '이것이 국회다'라는 찬사로 바꿔내야 한다"면서 "국회 개혁의 핵심은 속의 총량은 유지하되, 결정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상시국회 제도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북

수 법안소위 확대 등 법안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내에 '일하는 국회 추진단'을 구성하고 종합적인 국회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소개했다. 3선의 한창에 의원님께서 단장을 맡고 조승래 선임부대표와 정춘숙, 조영천 의원, 조선 중에서는 고민정, 김수흥, 이용우, 정정순 당선인 등이 추진단을 이끌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단은 다음 달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같은 달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원구성을 견인하는 고리로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의 시급성도 다시 부각하는 분위기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무엇보다 한시가 급한 3차 추경과 국난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21대의

신속한 개원이 필요하다"며 "민의와 어긋난 무리한 주장으로 조속한 국회 개원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위협에 빠뜨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에 그린뉴딜을 포함하고 그린뉴딜 기본법 제정 방침도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미처 처리하지 못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공공의대법, 지방자치법, 공정관련 구축관련 법안, 경찰개혁법의 경우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최우선 법안들로 지정해 신속하게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확장 재정에는 위기에 대응하는 효과적 방패이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라면서 "3차 추경이 고용안정, 산업보호, 한국형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 '한명숙 재조사' 드라이브

김태년 "지방선거 전 정치적 의도 의심"...박주민 "공수처 대상"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 점까지 언급하는 등 검찰 개혁에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한명숙 사건 재조사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 거대여당의 오만함이 드러나고 있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수사 당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한 전 총리는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였다"며 "이 사건의 출발에 정치적 의도는 없었는지 주목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故) 한만호 씨의 옥중 비방록 등을 거론하며 "의심을 할 만한 정황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공수처에서 다들 사안인지를 묻는 질

문에 김 원내대표는 "검찰, 법무부, 법원 등 해당 기관에서 먼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충분히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법적으로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다"라면서 "지금 당장 수사할 것이다, 말 것이다 말할 수 없고 독립성을 가지므로 공수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제와 전혀 새롭지 않은 비방록을 핑계로 한 전 총리를 되살리려 하는 것은, 177석 거대여당이 되었으니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오만함의 발로"라고 주장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6·15회담 상징 615호

DJ 아들 김홍걸 낙점

민주당 의원실 배정 마무리

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177인의 국회 의원회관 방배정이 마무리됐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6·15 남북공동선언을 상징해 관심이 쏠린 615호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비례대표 당선인에게 돌아갔다. 이 방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민생당 박지연 의원이 12년을 써온 곳이다. 민주당은 방의 상징성을 고려해 김 당선인에게 우선 배정했다고 한다.

광복절을 의미하는 815호는 재선에 성공한 박찬대 의원이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

전·현직 대통령이 사용했던 사무실도 새 주인을 맞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 썼던 638호는 조선인 조오섭 당선인에게 돌아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용했던 325호는 재선이 된 권철승 의원이 계속 사용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용한 312호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용한 545호는 각각 고영인 당선인과 이수진 비례대표 당선인에게 배정됐다.

이해찬 대표가 사용하던 1001호는 3선으로 여의도에 복귀하는 유기홍 당선인이 배정받았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사용해 '관운'이 넘치는 곳으로 인기가 많은 718호는 서영교 의원이 차지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사용한 454호는 5선 조정식 의원이 물려받는다.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희상 의장 "33년 정치인생 후회 없다"

퇴임 간담회... "아들 지역구 세습 논란은 쓰라린 순간"

퇴임을 앞둔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만감이 교차하지만 후회 없는 삶이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1965년 월가 넘치던 법대 시절 한일회담 반대 투쟁에 나선 시기를 떠올리면 55년의 세월, 1980년 서울의 봄을 기점으로 하면 40년, 1987년 제2 서울의 봄에 첫 창당에 참여한 시절을 기준으로 하면 33년"이

라면서 "평생 정치의 길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과거를 돌아봤다.

또 "평생의 업이자 신념이던 정치를 떠난다니 심경이 복잡했다. 팔짱 도루묵 인생이 아니었나 하는 깊은 회한이 밀려든 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아쉬움은 남아도 후회 없는 삶이었다. 보람이 가득했던 행복한 정치인의 길이었다"고 자평했다.

문 의장은 197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처음 만났던 순간,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순간을 정치 인생에서 가장 기뻐했던 순간과 슬펐던 순간으로 각각 꼽았다. 가장 아쉬웠던 순간으로는 아들 석균 씨가 지난 총선 때 공천 세습 논란에 휘말렸을 때를 꼽았다.

문 의장은 "내가 아들을 출세시키려고 위치를 이용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쓰라린 심정을 느꼈다"며 "과거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 컷오프된 적도 그만큼 모멸감을 느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은퇴 후 의정부로 돌아가 텃밭을 일구는 것이 진짜 꿈"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연합뉴스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가닥'

임기 놓고 막판 조율...주호영 '내년 재·보선 까지' 제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정자 사이에 임기를 둘러싸고 '내년 재·보선까지'를 놓고 막판 의견 조율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20일 3선 이상의 중진 의원과 차담 모임에서 김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이끄는 비대위 임기를 '내년 3월 말까지'로 제시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만약 이 안대로 김 내정자에게 '3월 말 임기'가 보장된다면 내년 4월 재보선의 공천권도 김 내정자가 사실상 행사하는 것이 된다.

이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등이 예정된 내년 4월 재보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당을 확실하게 장악할 수 있다는

김 내정자 측 입장과 일치하는 것인 평가가 당에서 나온다. 김 내정자에 대한 당내 반대 여론을 무마하면서 김 내정자의 비대위원장직 수락을 끌어낼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연천회 마지막 날인 22일 비대위 문제를 안건으로 올려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를 앞두고 의원들을 연쇄 접촉하면서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그는 중진 의원과의 차담에 앞서 재선 의원과 조찬회했다. 또 21대 당선인의 47.6%를 차지하는 초선 의원들과도 만찬을 했다. 이 과정에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김 내정자와 아무런 연락을 안 할 리가 있겠다. 연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합당하라" 미래한국당 시끌

당선인들 요구...사무처 당직자들 '전대 반대' 당무 거부

미래한국당 당선인들은 21일 미래통합당과 이틀 내 합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미래한국당 당선인 19명은 이날 오전 회동해 '5월 내 무조건 합당'에 의견을 모았다고 당선인들이 전했다.

이들은 "지금의 사태는 원유철 대표 개인의 당권 유지 욕심 때문에 초래된 소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래한국당 당선인들이 원하고, 통합당이 원

하는데 물리적 문제가 없다. 21대 국회 개원 전인 29일까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래한국당 사무처 당직자들도 원 대표의 임기를 8월 말까지로 연장하기 위한 26일 전당대회에 반대한다면서 당무 거부에 돌입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전대를 취소하고 통합당과의 합당을 최고 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상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하세요

신협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사채 정리 운동 실시 기간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신사기(신용등급 등)를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분할상환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